

# 혁신 성과 한 눈에...광주서 中企융합대전 막 올랐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유공자 15명 정부포상 수여 기술 교류·융합 성과...150개 기업 제품 전시

전국 중소기업인들의 교류와 성과 공유의 장인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의 막이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중기청)은 24일 광주시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24년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식을 열고 혁신 성과물 전시 및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중소기업융합대전은 중기부와 지자체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이정권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 및 중소기업회 원사 등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내수 경기 악화와 불안한 글

로벌 정세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저력은 혁신과 융합"이라며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교류와 결합의 열매를 수확하고 성과 확산과 결실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이는 행사가 대규모로 열려 감격스럽다"며 "광주의 맛과 멋, 의를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 열렸다. 기업 간 교류협업 및 기술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금탑 훈장 1점, 동탑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 총 15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김학규 ㈜디케이오스텍 대표는 자동차 서브프레임 분야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해외 부품의 국산화로 국가 수출 실적 견인



중소기업간 융합을 통해 창출된 혁신 성과물 등을 공유하는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이 2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애리 기자

및 자동차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동탑 산업훈장의 정원기(주)원경연 대표는 자동차용 정밀기어 및 오일펌프 기어세트 가공 분야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세 및 지역 경제 발

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소순민 주식회사 신미정 공의 대표와 ㈜코메어의 김상현 대표가 수상했다.

소순민 대표는 자동차 구동 사시 및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 신제품 연구개발에 성공했으며 김상현 대표는 국내 유일 40년 넘는 가스 연소기 제품 개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35건의 특허를 획득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

다.

행사 마지막에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홀로그램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사회자가 '융합과 혁신', 무대 위의 내빈과 관객이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라고 외치자 축포가 터지며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간 협업 성과를 비롯해 15여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고 협업기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지역 인재 채용 현장면접도 진행됐다.

더불어 지식학 협력 정책 포럼, 공공인대형 지식산업센터 정책 세미나, 광주 지역 연구 산업 활성화 포럼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동 행사 참석에 앞서 무인저속특장차 개발을 위해 다수의 기업과 함께 공동사업전환을 추진하는 ㈜화인특장을 방문해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도전할 수 없는 영역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나간다면, 한발 앞선 산업과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은솔 기자

## 수출 부진에...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0.1% 그쳤다

### 한은 전망치 0.5% 밑돌아...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지만, 수출이 2분기보다 오히려 뒷걸음치면서 반등 폭은 미미했다.

다만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가 0.5% 늘어나는 등 예상한 수준의 회복세가 이어졌다는 게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2분기에는 -0.2%까지 떨어진 뒤 3분기에 다시 성장 흐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0.1% 성장률은 한은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에 대해 "8월 전망 당시에는 글로벌 경기 흐름으로 미

뤄 수출이(3분기에)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토목 건설 부진에 2.8% 줄었다.

반대로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5% 불었고, 민간소비도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9%나 증가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내수는 0.9%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내수 중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2%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설투자의 경우 성장률을 0.4%p 주저앉혔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 3.4%, 0.2% 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지만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건설 위주로 0.7% 감소했다. /연합뉴스



##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외국인근로자 물품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24일 "전날 완도군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눔 물품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행 행사는 완도군 일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물품 품목으로는 침구류, 홉케 어킷(미니소화기, 해충퇴치용품),

화재대피용 방면마스크 등 200여점을 사업장에 배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은 "외국인근로자는 더 이상 방인이 아니며,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 광주디자인진흥원,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ESG 경영 실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4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 재순환과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의류, 도서 등의 물품을 아름다운가게 광주점단에 전달했

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

번 물품 기부 활동은 직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사회적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